

2025 오병이어선교회 | 동권 8호

S&J Foundation

두심향재





제1회동아프리카WCS
2024.8.5.-9.13, 탄자니아 음베아 ICC

칼럼

오병이어, Praise the Lord ♡

오병이어와 함께 경험하고, 노력하며, 성장해온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로 재임하던 시절 본 대학 병원 영양사가 오병이어선교회 파송 선교사로 헌신하는 계기를 기점으로 1997년 남서울은혜교회에서 개최하는 제1회 영양사 선교대회에 참석하면서 오병이어선교회와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지 현장을 방문하고 함께한 시간들은 오병이어만의 특별한 섬세함과 헌신적이며 통합적인 전인 사역을 추구하는 공동체에 대료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식품영양 전문인 사역과 사람을 세우는 훈련 사역, 교회 공동체 사역, Yellow Window 연구사역, 국제개발 사역들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함께 평생 성장하는 제자도를 일구기 위한 노력들, 변함없는 오병이어 사역자들의 헌신에 늘 도전과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며 과거 시대 선교사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커다란 도전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더욱 교회 공동체 토대에 근거한 소명의 부르심을 가진 선교사 정체성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공동체, 선교 훈련의 장을 통하여 통합적 성숙을 겸비한 글로벌 선교리더십 양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선교 리더십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오병이어의 생애를 쏟아 시간과 삶을 쏟아붓는 전인공동체 훈련학교(WCS)가 지금도 국내와 현지에서 운영되어 이끌어가는 노력들은 감사한 소식들입니다.

시간이 절리더라도, 소수 정예라도 성경적 세계관으로 통합적 영성을 추구하며 훈련을 평생에 걸쳐 연마하고 필요한 경험을 쌓고, 시야를 넓히고, 약점과 강점을 깨닫는 오병이어 좋은 선교리더십들이 계속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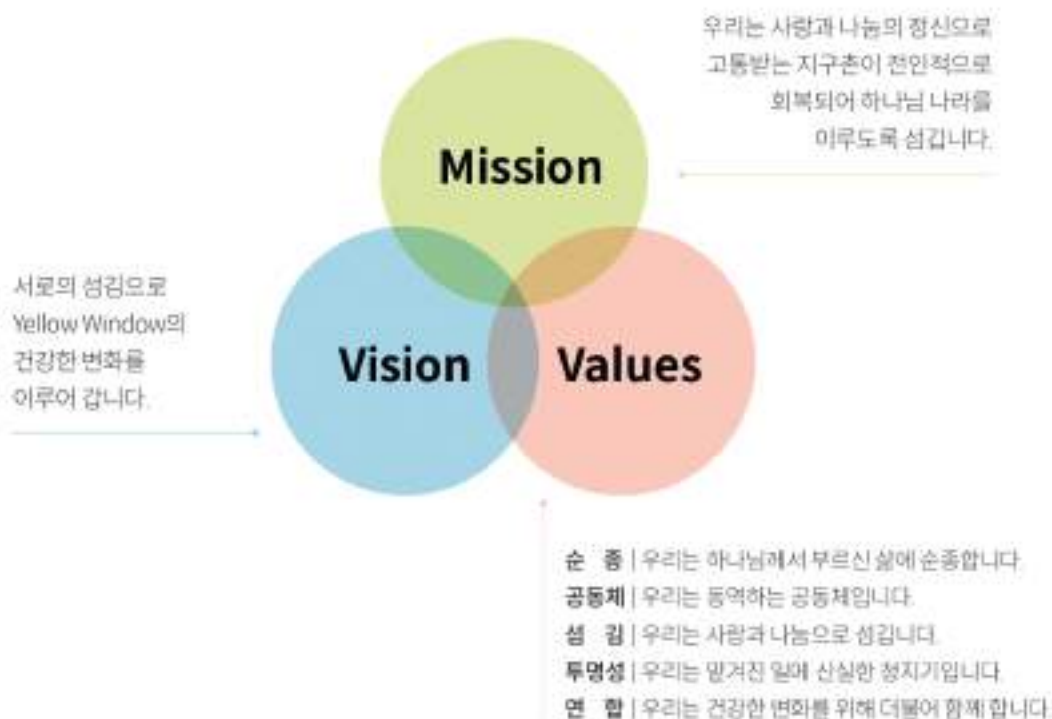
오병이어가 여전히 하나님을 늘 범사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활력이 넘치고 기쁨 충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합당하게 부름을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일영 이사
(위드 명예 이사장, 오병이어선교재단 이사)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막 6:37)

오병이어선교회는 1986년 설립된 식품영양전문인 선교단체로서 식품영양의
상대적 저개발지역인 Yellow Window의 회복을 위해 총체적 선교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중점전략 Mission Strategy

복음, 제자화

하나님의 성품으로 치유, 회복되어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합니다.

선교사 양성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현장을 채우는 사역을 사명으로 감당하며,
교회 개척과 제자 양육으로 열방을 섬기도록 합니다.

헌신 및 파송 | 부르심에 순종하여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합니다.

총체적 선교

풍성해

© calli furaha(손주희)

「풍성해」는 오병이어선교회의
공식 회지 이름으로 연 1회 발간됩니다.



표지 | 황성아 작가 재능기부
명제 : Spring of eden
규격 : 53.0cm*45.5cm
재질 : Acrylic on canvas

2025년 동권 8호

발행처 오병이어선교회

발행인 각미란

발행일 2025년 7월 31일

기획 및 편집 오병이어선교회

주소 [03996] 서울시 마포구 성매산로2길 47
(서교동442-5) 수양빌딩

전화 02)322-4630

이메일 52@yellowwindow.org

홈페이지 www.yellowwindow.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yellowwindow52

인스타그램 fngn_52

CONTENTS

- 03 **칼럼** 이일영이사 (오병이어선교재단)
- 06 **선교사 파송 현황**
- 08 **[특집]** 오병이어 캄보디아선교 20주년
- 19 **선교기획 시리즈**
이현수 대표 (프론티어스 선교회)
- 21 **선교현장 이야기1**
- 22 제1회 동아프리카 WCS (장준호 선교사)
- 24 제1회 마다가스카르 듀오 WCS (유수진 선교사)
- 25 탄자니아 영양관리자 양성 첫걸음 (이도경 선교사)
- 26 **선교현장 이야기2**
글로벌 선교를 위한 중어권 선교 (천요한 선교사)
- 28 **선교현장 이야기3** 북한이탈주민 멘토링
기억을 품은 만남, 복음으로 피어나다 (김영신 간사)
- 30 **오병이어+People** 내가 만난 오병이어
- 30 김지혜 영양교사 (부천 부곡 초등학교)
- 31 이정희 교수 (국립군산대학교)
- 32 **오병이어+News**
- 36 **재정보고**
- 37 **후원자 명단**

섬기는 사람들

(재) 오병이어선교재단 이사회

이사장 이영남

고 문 이용숙 (설립 초대회장)

감 사 김대형

이 사 각미란 김재철 오성호 윤형숙 이일영

오병이어선교회 대표 각미란

오병이어 해외선교위원 각미란 김미순 마진영 유수미 이옥

선교/교육 훈련원 이용숙, 주은혜

본부 사무국 김한나(행정/선교) 옥지은(행정/선교) 한상희(홍보/후원자)

최옥선(선교사 지원)

선교사 파송 현황 (2025년 8월 현재)



특집

오병이어 캄보디아선교 20주년

복음과 영양, 캄보디아 20년

김선미 선교사 (캄보디아)

Yellow Window와 캄보디아 초기선교

오병이어선교회는 2000년 총체적 선교 중점 전략 지역으로 Yellow Window를 선포하였다. 이후 2003년 공동체 내에 Yellow Window 연구회 (현_위드 영양개선연구소)가 창립되면서 선교지 정탐조사, 기초영양 조사, 청기 스터디 모임 그리고 Yellow Window 기도 모임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를 계기로 2004년 1월 캄보디아 Yellow Window Research가 진행되었고 이후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준비하심을 확인하며 2005년 9월 19일 김선미 선교사 파송을 통해 캄보디아 선교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캄보디아는 내전이 끝난 지 약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가난했고, 오랜 전쟁과 내전, 그리고 폴포트 정권이 남긴 '킬링필드'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최빈국 중 하나였다. Yellow Window 땅은 영양과 복음에 소외된 지역으로 영양과 복음의 두 축의 사역을 통해 전인적 회복이라는 공동체 비전을 가지고 캄보디아 선교에 임했다.

김선미 선교사 파송 초기에 공동체에서 2006년 1월 전인 세계관 학교 (WP : Wholistic Perspective), 2007년 1월 김선미 선교사 파송교회인 전인교회 무병처치, 2007년 12월~2008년 2월까지 제1기 식생활 전문가학교 (NIS: Nutrition Intervention School)를 캄보디아에서 함께 개최하면서 초기정착을 지원하였다. 제1기 NIS를 지역 조사 결과에 따라 [카열전달, 스룩쓰앙 쿤쁘랙트마이]에서 뿌랙트마이 보건소 기반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예방사업을 파일럿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립 프레야꼬사막 병원의 당뇨 센터에서 영양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캄보디아를 남에서 북으로 리서치 여행을 다니면서 보건소, 보건지소, 후송병원, 면사무소 등 지역 조사와 함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영양





분야의 필요를 파악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현재 소망의 새 빛교회가 소재해 있는 [카엠펙달 스톡영스누얼 쿤두엠프렛]이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캄보디아 영양 개선사업소”를 개설하게 되었다. 이 지역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자녀들의 언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 팀은 당초 계획했던 식품영양 전문인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2008년 12월부터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밤과 후 공부방’ 사역을 시작했다. 이는 현지 청소년들과 접촉 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가 되었다.

복음 사역 - 소망의 새 빛 교회 시작과 여정

[퐁트마이]라는 마을의 작은 집을 빌려, 낮에는 ‘밤과 후 공부방’ 사역을 하고 밤에는 사역자들의 집으로 사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2009년 7월, 울산 큰빛교회 단기선교팀이 아웅까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사역을 진행하였다. 이 사역에 참여했던 공부방 청소년 15명과 함께, 2009년 9월 ‘소망의 새 빛 교회’가 교회 건물 없이 시작되었다. 이듬해 2010년 초, 하나님께서는 학개 1장 8절의 “내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서울 개봉중앙교회가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선교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아둔 선교헌금을 보내왔으며 2011년 7월 현재의 [퐁면리움]에 “소망의 새 빛 교회”가 건축되었다. 서울 개봉중앙교회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교회부지 구입과 건물건축은 교회 부흥과 성장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다.

2010년 여름 수련회에서 기도와 말씀도 잘 몰랐던 청소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2013년에는 씬 씬낭, 행 르티, 루영 켄디 세 명이 첫 세례를 받는 큰 은혜를 경험 하였다. 이후 2014년 팔 보넬, 치웅 우덤, 와이 싸리, 웅 피어롤, 2015년 턴 티타, 퐁 소꾼티어, 푸언 뽀라, 2016년 뽀려아 밀리어, 안 스라이텔, 퐁 소꾼티어가 차례로 세례를 받으며 은혜를 더했다.

2014년에는 대저제일교회 초청으로 9명의 교회 리더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믿음의 도전을 받고 이후 한국어로 전공하는 청년들이 생겨나는 등, 교회를 적극적으로 섬기는 리더들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주 멤버들이 프놈펜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소망 하우스” 학사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신앙훈련을 이어갔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감사한 것은 처음 개척 당시 청소년이었던 이들이 소수이지만 이제는 리더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다.



영양 전문인사역 - 캄보디아 땅사면, 영양 증진을 넘어 자립의 꿈으로

이렇게 복음 사역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와 함께 영양전문인 사역을 열어가도록 하셨다. 공동체 연합기관인 (사)위드와 함께 2015년 7월 [카엠펙달 스톡영스누얼 쿤당사] 지역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 조사를 시작으로 지경을 넓혀갔다.

2016년 12월 위드 캄보디아 지부를 등록한 이후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캄보디아 현지 작물 보충식을 이용한 통합적 모자보건 영양 증진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기반의 영양개선프로그램으로써, 땅사면의 5세 미만 영양불량 어린이와 임신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보충식을 개발하고 생산, 공급하는 사업이며 지역의 여성을 영양활동가로 훈련하여 보건·영양·위생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영양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와 의료진들에 대한 영양 관련 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정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도 병행하였다.

약 10여 년 동안 진행된 이 사업은 2024년까지 마무리하고 지역사회로 이양하였다. 이양한 프로그램 중 영양보충식 생산공장과 식수시스템은 현재 비즈니스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앞으로 판매수익을 통해서 지역사회 보건영양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위드 캄보디아는 지역사회가 자립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땅사면에도 복음 사역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오병이어 캄보디아 선교 20년을 되돌아보며

캄보디아 선교 20주년을 되돌아보며 지난 세월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한다. 선교지에 발을 들이고 언어를 배우며 문화에 적응한 이후, 모든 선교사가 가지는 기도 제목은 “어떻게 사역을 시작할 것인가?” 일 것이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사역을 세워갈 수 있을지 막막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역이 이루어졌다. 캄보디아 선교 20주년을 맞아, 오병이어선교회는 그간의 성과와 함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도전과 과제를 직시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 선교는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인 헌신자를 세우지 못하고 한국인 장기 선교사도 정착하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오병이어 캄보디아 선교 20년의 성과와 도전, 과제를 성찰함으로써 앞으로의 20년을 바르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란다.

[캄보디아 선교를 인도하신 주요 성과]

▶ **'소망의 새 빛 교회' 개척** | '방과 후 공부방'으로 시작하여 교회 건축으로 이어진 '소망의 새 빛 교회'는 많은 현지 청소년과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다. 특히, 개척 당시의 청소년들이 이제는 교회의 리더가 되어 교회사역을 섬기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 **영양개선 전문인 사역의 이양** | '캄보디아 쿨팜사지역 현지 작물 영양보충식을 이용한 통합적 모자보건 영양 증진사업'은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지역사회에 이양되었다. 영양보충식 생산 공장과 식수시스템의 비즈니스화는 앞으로 지역사회 자립형 보건·영양 프로그램 운영의 기반이 되도록 노력 중이다.

▶ **현지인 리더십 양성** | 복음 사역과 영양전문인 사역의 주축이 현지인 리더들로 세워져 운영해 가도록 전환 되고 있다는 점은

랄프 윈터 박사의 개척(Pioneer), 양육(Parent), 협력(Partnership), 참가(Participant)라는 '4P 원리'로 비추어 볼 때, 오병이어 캄보디아 선교는 협력(Partnership)과 참가(Participant)의 중간 단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완전한 현지인 헌신자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복음 사역과 전문인 사역에서 현지인 리더들이 세워져 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약하나마 선교사의 책임과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동역의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캄보디아 선교 20년 은혜의 통령들]

▶ **수많은 동역자의 헌신** | 오병이어 선교회 캄보디아 선교 20년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공동체에서 파견된 단기 선교사, 자원봉사자, 전문인 봉사단원 등 수많은 사역자의 헌신, 기도와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특히 단기 봉사단원들이 전문인 사역에 동역하면서 장기 선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채워 주었고 '방과 후 공부방' 사역과 '소망의 새 빛 교회' 주일학교 사역을 품성하게 만들었으며, 교회 멤버들과의 깊은 관계 형성을 통해 교회의 성장을 견인했다.

▶ **교회, 기관과 후원자들의 지속적인 섬김** | 대부분의 단기 선교팀이 단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소망의 새 빛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선교팀을 파견해준 대구 BBB와 대저제일교회는 교회 멤버들의 성장과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국에서 기도와 물질로 동역한 수많은 후원자의 헌신 역시 이 모든 사역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 **본부와 함께하는 지원과 관리** | 공동체 본부 지원과 관리 또한 캄보디아 사역의 지속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리더십의 선교지 방문과 선교사 케어를 통해 현장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웠고, 매년 단기 선교팀과 국외자원봉사단을 파견하여 사역을 지원했으며, 필요에 따라 단기 선교사와 단기봉사자를 파송하여 현장



의 사역을 지원했다. 나아가 파송 선교사에 대한 정기적, 비정기적인 영적, 육체적, 윤리적 케어를 통해 선교사들이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통련'하며 섬길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특히 현지인 수영 판디 자매가 선교회에서 개최하는 WCS 훈련을 받으며 현지인 리더십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캄보디아 선교에 큰 축복이 되었다. 현지 리더들은 제자와 리더를 세우는 데 WCS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연스레 납득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현재의 도전과 과제]

지난 20년을 씬 없이 달려왔지만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현지인 헌신자, 즉 전적인 헌신을 통해 사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현지인 리더십이 아직 충분히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도전이다. 한국인 장기 선교사의 안정적인 정착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선교의 지속성과 리더십 승계에 대한 불안정성이 남아 있다. 이는 선교지의 사역과 현지인 리더십을 양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캄보디아 복음 사역과 영양전문인 사역 모두 규모에 비해 내적 인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될 위기를 직면할 수도 있다. 그동안 20년의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현지인 헌신자 양성과 한국인 장기 선교사의 안정적인 정착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욱 깊은 기도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선교 전략 수립, 현지화 이해와 적용

그동안 복음과 영양이라는 두 축 아래 사역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캄보디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사역이 무엇인지 자세히 평가하고 선교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열리는 대로' 사역을 진행했던 아쉬움이 있다. 예상치 못하게 교회가 개척되는 놀라운 은혜도 있었지만, 이로 인해 단순히 주어진 은혜를 섬기기에 급급하여 현지화 이해와 적용하는 것을 성숙하게 준비하지 못했다. 복음 사역, 영양사역 모두 헌신된 현지인 사역자들이 사역의 주체로 성장하여 리더십을 이양받지 못하는 현재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현지인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궁극적으로 현지인 헌신자들이 사역의 주체로 서는 방안과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여 선교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지 주도권(현지화)을 갖게 하는 주인 의식은 정책, 자원, 인적자원, 시스템 관리 영역등에서 단계별 과정이 실현되어야 하는 주요한 과제를 내부자 관점에서 이해하고 적용되어야 한다.



■ 복음 사역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교회사역

Yellow Window인 캄보디아에 복음과 영양이라는 두 축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 사역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훈련이 부족하였다. 특히 교회 사역에 있어서 영양전문인 선교사가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여 교회를 이끌기보다는 목회 및 신학 훈련으로 준비된 사역자와 연합하여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다. 복음 사역에 전문성을 겸비한 특히 불교 사회인 캄보디아에 적합한 효과적인 전도 전략에 관하여 연구하고 개발하여 복음의 접촉점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세계기독교 시대가 도래 하면서 선교는 이제 현지 교회들과 네트워킹 및 연합선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진정한 역할을 성숙 하게 협력 해야 한다.

■ 사역과 양성을 통한 1세대 리더십 구축

2015년 캄보디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WCS 훈련 기회를 놓쳤던 것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던 경험에 있다. 캄보디아 현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선교리더십 훈련을 진행하여 다음 세대 리더들을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지인 헌신자로 구성된 두꺼운 사역의 허리를 형성하여 건강한 출구전략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진행되길 소망한다.

■ 건강한 선교사 명성과 성숙한 팀 사역

복음과 영양이라는 두 축의 사역은 팀 사역이 필수적인데, 이를 뒷받침 하는 선교사 개개인의 명성은 중요하다. 그동안 파송된 오병이어 선교사들은 선교사 개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함이 선교사의 성품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고, 선교사 간에 용납함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되돌아본다. 이로 인해 장기 선교사들이 사역 기간이 만료되면 캄보디아를 떠나갔고, 단기 선교사들을 도전하고 장기 선교사로 이끌어내는 동력이 부족했다. 더 나아가 현지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해 오히려 시험에 들게 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 소망을 심어주지 못했음을 아파게 반성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본이 되는 건강한 명성과 성숙한 관계의 삶이 요구되므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마무리하며

오병이어 캄보디아 선교는 지난 20여 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다. 보냄 받은 선교사의 부족함과 실수로 인해 주님께 작은 열매만을 올려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다. 20년 전과 비교할 때 캄보디아는 최빈국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의 길로 들어섰으며, 선교사들은 이제 불교를 넘어 세속화와 싸워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주변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사회 분위기로 인해 많은 선교사가 입국하면서 선교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병이어선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무릎 꿇는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것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다시 20년이 흘렀을 때,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성숙한 릴레이 선교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캄보디아 불씨처럼 뜨거웠던 1년

스물다섯, 풋풋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넘치는 열정으로 첫 사역지인 캄보디아에 안된 선교사로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저는 '소망의 새 빛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풍선 감자지를 만들어 동네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아이들을 만나 나누어 주고, 교회에 오라고 전도하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주일이 되면 아이들이 제 주변에 둘러앉아 별 볼 것 없는 선생님을 예쁘다고, 재미있다고 말해 주던 그 모습 덕분에, 제 부족한 모습에 좌절했다가도 다시금 힘을 얻곤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의 첫 사역지이자 선교사의 길을 내딛는 첫걸음이 바로 캄보디아였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선교의 삶을 배워 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오병이어선교회의 캄보디아 사역이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물이 주어져 자라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오병이어 캄보디아 사역 가운데 흥민하여,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김하나-



내가 비록 겸손하나 아름다우니 (아가 1:3)

얼마 전에 깊이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겸손하나 아름다우니'(아가 1:3) 내 모습은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며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2014년 12월, 거룩한 사명감과 기대함으로 캄보디아에 들어갔던 그 순간이 마치 수채화 그림처럼 제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소망의 새 빛 교회'를 섬기며 경험했던 감사하고 풍성한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파울 잔차에 함께했던 일들, 축구 대회, 성경학교, 성찬절을 현지 교인들과 함께 준비했던 시간들,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찬양팀 리더 청년이 오지 않아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시간, 학사(대학생 기숙사) 새벽 묵상을 위해 졸린 눈을 비비며 함께 모였던 시간... 모든 순간이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련함을 깨닫게 하시고, 자해를 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늘 우리를 품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윤정일, 주범순-



오병이어 캄보디아 선교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오병이어 캄보디아 선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은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20대의 절반을 캄보디아 사역에 헌신하며 보냈습니다. 이제 40대가 되어 뒤돌아보니,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일 중 손에 꼽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지낸 어른인 줄 알고, 무언가 선한 일을 해낼 것이라 기대하며 시작했지만, 캄보디아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넓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에 익숙하지 않았던 제가 서툴게 발을 잘못 걸터 섰지만, 오히려 많은 캄보디아 분들이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기에 선교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시간은 결코 아깝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한 방식으로 캄보디아를 전인적으로 회복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랜 시간 동안 캄보디아를 섬기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 오병이어선교회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양은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난 땅, 캄보디아

오병이어 캄보디아 선교 20주년 소식을 듣고, 지난 4년간 캄보디아에서 보냈던 시간이 머릿속에 필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귀한 시간의 한 부분을 함께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는 제게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오랜 기간 머물렀던 첫 선교지였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마주한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실시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알아갈 수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동역자들, 지역 주민들, 파트너들, 그리고 교회 지

체들과 함께하며, 우리 각자와 그 땅의 영혼들이 건강하게 변화되어 가는 시간 속에서, 저는 단지 성경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제 내면의 말바닥을 마주하며 주님과 뜨겁게 씨름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는, 제 인생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모습을 보며, 지금까지 그대 오셨듯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끄실 시간이 더욱 기대됩니다. 현지 가족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캄보디아는 여전히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저는 그 땅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신민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캄보디아에서의 2년

캄보디아에서의 2년은 제 인생의 꿈이 실현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굶주리고 배고픈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삶, 그것이 제 삶의 방향이자 사명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참석한 CCC 여름수련회에서 '오병이어선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 제 비전은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저는 '영양 선교'라는 명확한 목표를 품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4년간 학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식품영양학이라는 전공을 통해 반드시 선교의 길에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있었기에, 학업은 단순한 공부를 넘어 준비된 사역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영양보충식 개발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일들이었기에 시행착오도 많았고, 낮은 크메르어로 장을 보고 현지 직원들과 소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앞에서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한 걸음씩 배우고 익혀 가며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은 제 시야를 넓혀 주었고, 제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염민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고, 이는 제 내면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워 가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2년은 단순한 봉사의 시간이 아니라, 저를 세롭게 빛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항미-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우영 쥘다입니다. 저는 2009년에 처음으로 아웅까 초등학교에서 열린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겨, 한국어와 영어를 공부하러 처음으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업이 끝날 때 선교사님께서 항상 "일요일에 예배가 있으니 예배드리러 교회로 오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 의미도 모른 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처음 들은 찬양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그때부터 계속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공장에 다니며 돈을 벌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로 상담을 하게 되었고, 오병이어선교회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병이어선교회의 장학금을 통해 크메르문학과와 한국어를 전공하게 되었고, 그 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후 위드 캄보디아에서 일하게 되었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리더로 세워졌고, 점점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많아졌습니다. 주일에는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제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학업에 지쳐 있을 때도 교회에 오면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 저의 신앙도 자라났고,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 중에는 해외 연도방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장학금이 단지 공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언제나 자기 집처럼 편안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지역 주민들도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 빛을 비추는 '소망의 새 빛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우영 쥘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의 새 빛 교회 멤버인 쏘 소폰타입니다. 저는 친구의 정도로 소망의 새 빛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가는 것이 재미있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면 선교사님들과 교회 멤버들이 저를 가족처럼 사랑해 주셔서 정말 따뜻함을 느꼈고, 그 따뜻함 때문에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운동과 찬양으로 함께 성결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고, 잘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운동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성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운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찬양 운동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차를 운전하다가 집 기둥에 부딪혀 차를 심하게 긁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차를 무척 아꼈던 터라, 혼날까 봐 겁이 났고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큰 벌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 "무슨



선교기획 시리즈

무슬림선교를 향한 새로운 헌신

이현수대표 (프론티어스 선교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모두 아직도 Y2K(2000년 문제)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지역에서도 여러 선교사들이 그 두려움과 막연함으로 인해 귀국을 서둘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은 지난 25년간 이슬람 사역과 무슬림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9·11 테러가 뉴욕 한복판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잠시 귀국해 아침 뉴스를 보던 TV 앞에서 펼쳐진 그 장면은, 적어도 4년간 이슬람권 선교에 헌신했던 저에게 두려움과 또 다른 막연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9·11 사태 이후 이슬람 세계는 요동치기 시작했고, 지금도 여러 곳에서 안팎의 도전과 불안정 속에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소식을 매일 접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리스천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무슬림을 포함한)의 하나님, 창조주가 되심을 의심치 않습니다. 비록 전쟁의 아픔과 상흔 속에, 보트를 탄 채 포획 속에서 조국을 뒤로하고 유럽이나 보다 안전한 나라로 떠나는 무슬림 난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

다. 21세기 무슬림들의 삶은 창세기 16장에서 21장까지 기록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삶을 고스란히 답습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며, “너 고통을 들으셨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수많은 무슬림(지금 약 18억 명)의 오늘날 아픔과 고통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예언이 아닐까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거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무슬림 난민들을 접하는 일조차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섭리 안에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설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아버지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저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운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모든 두려움을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 번은 싸염염으로 이직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직장은 거리가 너무 멀어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일을 한 후,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했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의 예배 참석이었지만, 교회 멤버들은 저를 따뜻하게, 사람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교회만큼 편안한 곳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집 근처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늘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혼자가 아닌 주님께서 늘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생겼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로 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크든 작든 문제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제 믿음이 계속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우리 가족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뽕 소폰티어-



예수님을 만난 후의 새로운 삶

저는 소망의 새 빛 교회 멤버 뽕 소폰티어입니다. 친구 판디의 전도로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면서 오병이어 선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따뜻함과 사랑이 부족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 동생만 편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동생과 늘 비교당한다는 생각에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감정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아 친구 판디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자 판디는 저를 위로해 주었고, 교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했을 때는 찬양과 율동이 너무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예배 분위기였지만, 교회에 갈 때마다 선교사님들과 친구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주일에는 친구들과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어 항상 기다려졌고, 그래서 일요일이 저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인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 부족함을 알기에 많이 긴장했지만, 그만큼 기도로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용기와 평안을 주셨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과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와 가족 간의 좋지 않았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저를 자기중심적인 사람에서, 가족과 교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제 삶은 더 행복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제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 가족과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뽕 소폰티어-

1. 무슬림 선교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설과 능력

이슬람이 시작된 지 지금까지 1400년이 넘었습니다.

이슬람은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와 메디나에서 고아 출신이었던 무함마드라는 젊은이로부터 시작되었고, 기독교 제국이었던 비잔틴 제국의 바로 옆에서 새로운 일신교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은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 페르시아 제국과 비잔틴 제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만, 결정적인 진리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알라'와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끊임없는 분투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이 분투에 개입해 알라를 유일한 신으로, 무함마드를 신의 유일무이한 선지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가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가정해본다면 '하니프(Hanif; 신이 한 분임을 고백하는 사람)'로 알려진 무함마드가 아랍어로 된 성경(아랍어 성경은 무함마드 사후 수세기 뒤에야 출판됨)을 접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변에서 만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한 역사학자는 무함마드가 자신의 출생보다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비잔틴 병사의 말발굽 아래 죽었을 것이고, 100년 후에 태어났다면 위대한 기독교 전도자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에 호의적이었던 무함마드도 나중에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제국이 무슬림군대에 의해 점령당하고, 비잔틴의 수도 콘스탄티노플까지 위협받으면서 기독교와 이슬람은 초기부터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잔틴제국과 그 안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겼고, 수도사들과 전도자들은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무슬림에게 나아가기보다 동방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14세기 동안 무슬림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들어는 보았지만, 그가 구세주임을 고백할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와 환경, 만남을 그리스도인들이 의도적으로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명백히 선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복음을 듣는 기회는 모두에게 허락되어야 하며, 그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몇몇 그리스도인과 선교단체들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헌신했고, 생애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까지 무슬림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적었고, 대부분의 무슬림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영적 불균형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 아래, 우리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운동도 시작되었습니다. 무슬림들이 일 년에 한 달씩 금식하는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도록 기도하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이 확산 되었고, 매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달 동안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헌신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응답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을까요? 어쩌면 둘이 합쳐져 일어난 시너지였을 것입니다.

21세기 들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 운동은 그들의 깊은 아픔과 상처, 고난 가운데 일어난 복음의 역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로 이슬람 세계 전반에 걸쳐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심을 목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한,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슬림들의 차갑고 어두운 마음에 빛으로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전해야 하며, 이를 통해 무슬림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2. 상황과 환경으로 무슬림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좋은 원칙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기서 복음을 나누는 태도에 관한 귀한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슬림 거주국은 서구 열강의 식민지 통치를 경험했고, 과거 찬란했던 이슬람 제국(오스만, 사파비, 무굴 제국)의 문명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지난 300년간 서구 열강의 식민 통치로 마음이 크게 상해, 서구에서 전해지는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큼니다.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슬림을 사랑으로 대하는 겸손한 자세,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사랑이 아니라 무슬림들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깊은 관계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그들의 입장과 생각을 공감하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태도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슬림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빌립보서 2장 5~8절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함 없이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겸손한 모습이야말로 무슬림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3.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

지난 20여 년간 대한민국은 다민족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 흐름은 피할 수 없으므로, 현명하게 맞이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무슬림이 다양한 이유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쟁 난민들도 입국했습니다. 놀라고 두려워하며 그들을 적대하거나 모진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떠난 약자들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상기시키듯,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주민, 특히 무슬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길 원하십니다. 무슬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내일의 선교리더십 훈련 East Africa WCS

장준호 선교사 (마다가스카르)

인생은 공항의 입국장(Arrival)과 출국장(Departure)이다. 언젠가 선교지를 떠나야 한다. 사역자, 선교사, 리더는 모두 유한한 시간을 산다. 인생에는 등장과 퇴장이 있다. 선교사로 입국장을 통해 선교지로 들어오고, 사역을 마친 후 출국장을 떠나는 시점이 있다. 선교 시작부터 출구 전략을 준비하고 사역 하는 것은 중요하다.

나는 회사 퇴사 이후 2003년도 12기 WCS(전인공동체학교)를 받는 중, 몽골 옴스 대학교 기숙사에서 소명의 말씀을 받았다. 충성된 군사로 작전 명령이 떨어지면 어떤 작전 지역이든 지체 없이 '떠나라'는 인생 말씀이다(딤후 2:2-4).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딤후 2:2, 새번역). 2025년 현재 이 약속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작전을 수행함과 동시에, 군사 교관으로 작전을 이어갈 유능한 군사를 '남겨라'는 명령으로 길이 다가온다.

한국 현지 선교는 한국인 선교사가 주도했다(?). 이방인으로 들어가 '그 땅에 벼를 묻으리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사역하며 모든 것을 다 퍼주었다. 문제는, 그 탁월한 선교사가 떠나거나 자리를 비우면 그 선교는 거기에서 멈춘다는 것이다. 건물은 남는데 사람이 남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다 함께 퇴장한다. 자신의 마지막을 예상하며 준비하는 출구 전략(Exit Strategy)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이다. "내가 떠난 자리에 누가 설 것인가?" 이것은 나의 부재를 대비하는 현장 선교사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진지한 물음이다.

지속 가능한 선교, 바울의 모델, 의존에서 파트너로 가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정 한 개인에게 의존하는 선교는 취약하다. 선교사는 현지인들이 자립적으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임명하고, 성경적 원칙을 세우고, 복음이 계속 전파되도록 한 후 떠났으며,



사람과 기록물(서신서)을 유산으로 남겼다(행 14:23). 선교가 선교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성도들이 신앙과 사역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오병이어선교회는 건강한 한 사람을 만드는 일에 집중한다. 전인공동체학교(WCS)는 일정 기간 공동체생활을 통해 건강한 정체성을 세우는 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 자신을 묶는 죄와 상처를 극복하여 부름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진행한다. 그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역과 보고가 풍성했지만, 현지인을 하나 된 마음으로 세우는 일에는 부족함이 있었음을 반성한다.

최근 오병이어선교회가 2021년 8월 동아프리카 스와질리어권 선교를 위한 선교대회를 개최 하였다. 이후 2023년 1월 마다가스카르에서 오병이어 동아프리카 선교사들이 모여 컨퍼런스를 개최 하여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해 사역을 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 8월-9월에는 동아프리카 사역지인 마다가스카르와 탄자니아의 현지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탄자니아 올베아에서 제1회 동아프리카 WCS가 6주간 개최 되었다.

4개 국어(스와힐리어, 말라가시, 한국어, 영어), 3개국(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한국)의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생활을 했다. 공통 교집합으로 언어는 영어로 훈련학교를 진행했고, 아홉 명의 한국인 오병이어 사역자들이 간사로 아프리카 청년들을 섬겼다. 우리가 지난 30여 년간 진행한 오병이어 훈련학교의 스피릿 전달과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여러 의구심도 있었지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었음을 확인했다. 한국과는 다른 문화적 상황(context)에서 그들이 겪은 상처를 회복하고, 그들을 묶고 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극복할 때, 이들은 우리의 양육자에서 동반자로 함께 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작년, 마다가스카르의 나니아센터에서 청년들을 동원할 때 나는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이 저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길을 만드시는 분(the Waymaker) 이심을 보라."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항공료와 훈련비용(9,600달러)을 모금할 수 있었다. 이 기적의 배경에는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드린 풍성한 오병이어의 나눔이 있었다. 훈련 이후, 이들은 하나님 나라 교회의 일꾼으로 현장을 함께 지키고 있다.

계속해서 동아프리카 선교 다음 세대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일들이 계속 되어지길 소망한다. 모든 여정에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끝이 아니라 전해짐에서 빛난다. WCS 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세워지길 소망한다. 이들을 위해 이전에 훈련생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번에는 간사라는 이름으로, 이 학교를 수료한 현지인 졸업생들이 간사가 되어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갈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로 떠나기 전, 제자들을 세우셨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를 세웠다. 엘리야는 불말을 타고 떠나며, 엘리사에게 망토를 남겼다. 그들의 공통점은 사명을 다음 사람에게 넘겼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다음 세대를 열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가 아닌, 함께 이어가는 이야기이다. 오병이어의 전부를 드리는 시작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K-선교(Kingdom Mission)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

유수진 선교사 (마다가스카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했던 2025년 2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진행된 제1회 마다가스카르 DUO WCS 시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따스한 햇볕이 가득했던 마마센터 마당, WCS훈련생들이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모습은 마치 천국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이라는 주제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DUO WCS (부부 전인공동체학교)는 현지인 3가정(정글로드 부녀, 뚜끼 따피아나, 페누사차가 나린드라 가정)과 한국인 2가정(홍재호·권미령 선교사, 김문석·장지혜 선교사 가정)이 훈련생으로 참여했습니다. 현지인 가정들은 마다가스카르 지부에서 오랫동안 동역해 온 직원들이자 보냄받은 비나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훈련생 중 뚜끼 형제는 비나센터 관리인이자 비나센터 교사인 따피아나 자매의 남편이며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었던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DUO WCS 훈련에 아내와 함께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매일 아침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경적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구원의 확신' 강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깊은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 무거웠던 마음은 내적 치유 시간을 통해 치유되었고, 간증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음을 선포했습니다. 뚜끼 형제뿐 아니라 모든 훈련생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만지심과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DUO WCS의 목표인 하나님과의 친밀감 회복, 내면세계의 치유, 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모든 훈련생에게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룩한 부르심에 모두 순종하며 헌신했습니다. 수료식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으로 훈련생들과 간사님들을 격려 해 주셨습니다. DUO WCS를 통해 훈련생들을 만나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은 앞으로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모든 훈련생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동아프리카 선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탄자니아 영양관리자 양성 첫걸음

이도경 선교사 (탄자니아)

탄자니아 학교 급식 현장은 한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돌 세 개 위에 솥을 올려 장작불을 피우고, 흙 모래가 가득한 곳에 나무와 벽돌을 사용하여 지지대를 만들고 사방 벽이 둘러 채로 위에 철판 지붕 한 장을 올립니다. 전처리 공간, 식재료 보관 공간, 식사 공간 역시 열악한 환경입니다. 중앙 정부가 학교마다 급식 담당 교사 의무화와 학교 급식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따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위드 탄자니아는 오병이어선교재단, 음베야의 사립대학 TEKU와 2024년 5월 MOU를 맺게 되었고, 동아프리카 영양개선 센터와 영양관리 학과 설립을 통해 영양 전문가 양성이라는 공동체 비전을 더욱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품과 영양을 전공한 탄자니아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탄자니아의 미래세대를 위한 일에 전공을 살려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과 함께 지난 2024년 5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제14기 NIS가 '학령기 아동 대상 영양 중재 프로그램'으로 영양관리자 양성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로고로 4명, 음베야 4명, 총 8명의 훈련생이 참여하였고 한국과 현지 전문가들이 8개의 온·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학교 급식 전문 지식 등 이론교육뿐 아니라 토론, 실험, 실습을 병행하여 실제적인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롭게 접하는 내용들을 따라가는 것을 어려워하며 현지 적용의 한계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약 한 달간 매일 교재하며 현지 상황과 필요가 융합되었고, 영양관리자의 필요성을 학교장, 영양담당 교사, 조리사, 학생들, 학부모, 정부 관계자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오병이어선교회 탄자니아 사역자들, TEKU 관계자들, 위드 탄자니아를 통해 만난 현지인 직원들, 그리고 영양관리자 양성 교육을 통해 만난 전문 인력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위드 탄자니아를 재정비하시고, 2025년 10월 중순 TEKU 내 동아프리카 영양개선 센터 개소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으며, 몽골의 영양개선연구소에 이어 탄자니아를 거점으로 동아프리카 영양개선이라는 비전을 통해 복음 사역과 영양 사역이라는 두 날개로 총체적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음을 믿으며,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구합니다.



글로벌 선교를 위한 중어권 선교 현황과 전망

천요한 선교사 (C국)

1. 서론: 중어권 선교의 환경 변화

최근 중국 정부의 강력한 종교 규제(2018년 종교 사무조례 개정, 2022년 온라인 종교 활동 금지령)와 코로나 19의 영향, 디지털 감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중국 내 한인 선교사의 사역은 크게 위축되었다. 2017년 이후 많은 한인 선교사들이 비자 문제, 사역 제한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중국을 떠나게 되었고, 이는 한국 교회의 중국 선교 사역에도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 중국 가정교회들은 공개 활동을 피하고 소그룹 중심의 비공개 사역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Zoom, Teams, WeChat)을 통한 제자 훈련과 목회 상담, 신학교육, Kairos 선교 훈련은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키이로스 선교 훈련 수료생이 거의 20만 명에 이른다는 점은 고무적인 사실이다.

2. 본론: 중어권 선교의 주요 흐름

2.1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 속지주의(territorialism) → 속인주의(person-based approach)

과거 지리적 지역(속지주의)에 초점을 맞춘 선교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진 화인 디아스포라(속인주의)를 중심으로 한 선교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한인 선교사들도 동남아, 중앙아시아, 유럽, 북미 등지의 화인 공동체로 사역지를 재배치하고 있다. 국내로 복귀한 선교사들은 재한 중국인 유학생, 이주민 사역, 캠퍼스 사역 등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2.2 중국 교회의 자체적 성장과 선교 동원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개신교 인구는 약 1억 명(화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선교 가이드북)에 이르며, 이는 공산당원 수와 맞먹는 규모다. 중국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역동적으로 성장했으며,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특히 파송된 중국인 선교사 중 70% 이상이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 중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3 디아스포라 화인 사역의 확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政策, One Belt One Road) 정책과 함께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지에 거주하는 화인 디아스포라 인구는 약 7,300만~8,000만 명에 달한다. 전 세계에 약 2만 개의 화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존재하며, 이들은 선교적 기지로 기능하며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사역이 가능하다.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글로벌 선교의 중요한 기회로 작용한다.

2.4 중어권 선교의 주요 과제

-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전략적 선교 대응 필요
- 한국인 선교사 재배치와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 중국 교회 지도자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중국인 선교사를 위한 멘토링, 리더십 훈련, 신학 훈련 강화 필요
- 중국인 선교사를 위한 재교육과 문화 이해·언어 훈련 강화

3. 중어권 선교의 미래 전망

3.1 중국 내 선교 전망

단기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종교적 통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공개 소그룹 중심의 사역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명적 정체성을 견지하고 자립적인 성장을 이루며, 온라인 사역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신학교육 참여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3.2 디아스포라 중심의 선교 확대

해외 화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디아스포라 선교는 활발해질 것이며, 중국어 문화권을 이해하는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은 이들과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일본, 중앙아시아, 유럽, 남미 등지의 디아스포라 화인교회들은 선교 허브 역할을 하며 중국 선교사들의 선교지 정착을 돕고 있다.

3.3 중국 교회의 세계 선교 참여

필자의 관점에서 중국 교회는 이제 '선교 받는 대상'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선교사의 교육 수준과 문화·언어 이해 부족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를 위한 선교사 재교육이 시급하다.

4. 결론: 선교 전략의 전환과 협력

한국 교회의 중어권 선교는 위기이자 기회의 시점에 있다. 중국 내 직접 사역의 제약 속에서도 디아스포라 화인 사역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역을 통해 새로운 선교 지평이 열리고 있다. 이제는 한국 교회와 선교지도자들이 중국 교회를 선교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한국 선교사는 주도자에서 멘토로 역할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중국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자립적 성장과 세계 선교 참여를 위한 협력 및 리더십 개발을 위한 지원이 중어권 선교의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Baker, David B., Todd M. Johnson, and Peter F. Crossing. "Christian World Communities: Five Overviews of Global Christianity, AD 1800–2025."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33, no. 1 (2009): 33–34.
- 김영호, "디아스포라 선교와 화인교회," 『선교와 신학』 제35권 (서울: 장신대학교출판부, 2020), 89–91.
- 김홍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대응』, 『국제문제연구』 제58권 4호, 2019.
- 김재영, "일대일로의 중국선교: 선교적 기회인가 도전인가?", 『선교와 신학』 제46권, 2021.
- 조영숙, "글로벌 디아스포라와 선교적 교회: 다문화 정체성과 선교의 새로운 지평," 『신학과 선교』 제45권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2019), 114–117.
- Chinese Diaspora Mission Network, 화인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한 가이드북, 2024.

기억을 품은 만남, 복음으로 피어나다

김영신 간사 (사)위드

오병이어는 2022년부터 여명학교 논현기숙사와 함께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뒤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2세들과 특별한 멘토링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생소한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 소중한 학생들에게, 오병이어는 함께 웃고 공감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기억에 남을 만남'을 선물해 왔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는 13명의 귀한 학생들과 네 차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횡수로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서로의 삶에 귀 기울였고, 낯설이 익숙함으로, 어색함이 따뜻함으로 스며드는 순간들을 경험하였습니다.

Episode 1. 새로운 시작, 부활과 마침처럼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로 문을 연 첫 만남

2024년 봄, 우리의 여정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을 주신 부활의 은혜는 여명학교 논현기숙사에서 만난 학생들과의 첫 만남에 깊은 울림을 더해주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정착한 이들은 이종의 정체성 속에서도 환한 미소와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고, 우리는 생명의 기쁨을 담아 정성껏 꾸민 삶은 달걀과 부활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진 말씀 카드 꾸미기 시간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었고,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가슴 속에 따뜻한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단지 시작일 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더 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 함께 나눌 시간들이 단순히 만남을 넘어, 학생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소중한 추억과 진정한 인연으로 자리나기를 소망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Episode 2. 대낮의 파자마 타임 한 가족처럼 따뜻한 공간에 나눈 환대 웃음

그리고 알뜰 속 고백의 은혜

햇살이 포근히 비추던 봄날, 우리는 두 번째 만남을 위해 본부 간사의 집으로 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환대와 사랑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공간에 긴장하던 학생들도, 분홍빛 웬킨 드링크와 정성스러운 핑거푸드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이 있을지도 모를 소중한 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귀히 여기시는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팀별 성경 보드게임은 말씀을 향한 마음을 여는 즐거운 계기가 되었고, 퀴즈와 벌칙으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점심 시간엔 모두가 마치 가족처럼 편안히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의 파스한 대화와 환한 웃음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듯한 은혜로운 순간이었고, 우리는 그 시간을 사랑의 장면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Episode 3. 따뜻한 지구를 위한 난쟁, 종말 쓰레기를 줍는 손길과 향기로온 비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초록빛이 감도는 이른 여름의 어느 토요일, 우리는 세 번째 만남을 맞아 8명의 학생들과 함께 마포구청역 인근 홍재천에서 난지한강공원까지 걷는 줄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쓰레기를 직접 주우며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는 일이 단순히 책임이 아닌 사랑의 실천임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선물을 벗고 하천 속까지 들어간 학생들의 모습 속에는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활동을 마친 뒤 돛자리 위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섬의 시간은 도심 속에서 누린 가장 잔잔한 위로이자 평안이었습니다. "또 오고 싶어요"라는 학생들의 말에, 우리도 마음 깊이 감사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진행한 천연 비누 만들기는, 더러움을 씻어내고 새롭게 빚어지는 삶의 상징처럼 다가왔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지어지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Episode 4. 배려, 그리고 인생 온전지로 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탄의 기쁨 속에서 함께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들어선 12월, 우리는 여명학교 논현기숙사에서 다시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봄날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이번 마지막 모임은 '배려'를 주제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본부 간사들이 학생들에게 1:1로 정성스레 손편지를 전달하였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학생들의 눈빛에 잔잔한 감동으로 변했습니다. 이어서 함께한 2024 활동 영상은 지난 만남들의 추억을 되살리며 자연스러운 미소를 자아냈고, 이어진 성탄 빙고 게임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탄 영상과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금 되새기며 영결 기도의 시간을 가진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학생들 마음 깊이 다가오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요한복음 성경책을 선물했고, 학생들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겨진 구절을 카톡으로 나누며 주는 모습은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들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안에 조용히 자라나는 복음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이 모임은 단지 연말의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작은 천국 같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함께 고백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멘토링을 넘어, 학생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복음의 씨앗을 심는 여정이었습니다. 한 걸음씩 쌓여 가는 만남은, 마치 통일이라는 크고도 낯선 미래를 준비하는 조용한 기도의 발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울림으로 남았고, 그 기억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김지혜 영양교사 (부천 부곡 초등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부곡초등학교에서 영양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지혜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먹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대째 믿음을 지켜오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 섬기는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선교회, 위드와의 만남을 통해 식품영양 전문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언제부터 오병이어선교회를 알게 되어 함께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대학생 시절 지금 캠퍼디아에 계신 김선미 선교사님께서 오병이어선교회를 소개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2011년 경기학교 영양선우회(카페명: 어부의 그물) 예배를 드리면서 오병이어 선교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예배와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선교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 있었던 순간들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2006년 7월, 오병이어선교회 모체로 발족한 구제 구호 사업 기관인 「국제 사랑의 나눔(현재 (사) 위드)」에서 진행했던 "2006 Love Tibet" 봉사 활동은 제게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경기학교 영양사 선우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함창명 선교사님이 티베트에서 사역 중인 지역이었고, 현재 몽골에 계신 윤항숙 선교사님이 팀을 인솔 하셨습니다. 저는 영양교육과 음식 나눔을 담당하였었는데 특히 영양교육만으로도 고혈압 수치가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2010년 6월 18일에는 몽골 음식 사랑의 교회 창립 예배에도 참석하며 감격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매년 여름 전국 기록 식품영양전문인 연합예배에 참석하여 오병이어 공동체의 사역들을 보며 늘 감탄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는 오병이어선교회의 「북한 영양급식위원회」 활동을 통해 북한 학교급식을 위한 사역을 준비하는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실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눔은 회원님께 어떤 것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말씀은 제게 직업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장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물질로 협력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와 함께 성장한 이야기 또는 앞으로 오병이어선교회에 거는 기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오병이어와 함께 티베트와 몽골에 이어 북한까지 현재 하나님의 꿈을 함께 릴레이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식품 영양 전문인들을 통해 오병이어에 계속되는 헌신이 부르심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고통받는 지구촌을 위해 쓰임 받길 기도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식품 영양 전문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선교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병이어 선교사님들과 본부 사역자들이 더욱 지지받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잘 감당하시도록 돕고 응원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정희 교수 (국립군산대학교, (사) 위드 전문위원)

저는 군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사단법인 위드의 보건의영양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육과 국제 영양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외 지역사회 영양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부르심에 따라 기도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선교회를 언제부터 알게 되어 함께 하고 계시는지요?

오병이어선교회는 약 25년 전 석사 과정 중 서연경 소장님과 이명민 위원님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캠퍼스 모임에서 만난 김선미 선교사님의 순전한 믿음과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지체들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이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병이어선교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삶에 미친 영향, 변화 등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오병이어선교회와의 인연을 통해 제 삶은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석사 과정에서 Yellow Window 지역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국제 영양 활동가라는 꿈을 품고 Tufts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학 생활 동안 이용규 선교사님과 최주현 선교사님의 격려, 중국 연변 연구 시 김미정 선교사님의 따뜻한 배려 등 오병이어를 통해 만난 분들의 지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 저에게 영적·정신적 성장은 물론 전공 분야에서도 큰 성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식품영양 전문인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나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최근 가장 보람 있었던 활동은 위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몽골 초·중·고등학교 급식 환경 개선 사업'에 영양 분야 전문가로 참여한 것입니다. 2024년 몽골 현지에서 진행된 강사 교육에서 몽골 강사진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진지한 태도를 보며 감동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오병이어 공동체 지체들의 섬김의 리더십을 직접 보고 배운 소중한 경험에 감사했습니다.

오병이어와 함께 성장한 이야기 또는 앞으로 오병이어선교회에 거는 기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오병이어선교회가 앞으로도 지체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해 가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 영양을 위해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날을 소망 합니다.

국내 소식 및 광고

44기 WCS (전인공동체학교)

44기 WCS 훈련학교가 2025년 4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8주간 경남 합천 오두막공동체에서 청년 5명의 훈련생들이 참여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수 24:10)'라는 주제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 건강한 그리스인으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갔다. 계속해서 훈련학교를 통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 사역에 동역하기 희망하는 분들이 함께 세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연이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가정을 위한 45기 DUO WCS가 2025년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6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마다가스카르 선교사 파송

2024년 12월 2일 홍재호, 권미영 선교사 가정이 36년간 출석하던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로 직분을 감당한 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헌신하고 마다가스카르로 파송 받았다. 파송 받은 선교사 가정이 새롭게 부르심 땅에서 잘 정착하여 계속해서 부르심의 소명을 이어가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으로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청년의 꿈, 오병이어 장학금 지급

보건영양전문가를 꿈꾸며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에서의 유학을 준비하던 청년에게 '오병이어 장학금'을 지급하여 Yellow Window를 향한 꿈을 지원하였다.

그 외에도 선교사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들에게 재정이 걸림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한 날개가 꺾이지 않고 활찬 날갯짓하여 날 수 있도록 응원하며 지원하고 있다.

북한영양급식위원회

「북한영양급식위원회」가 2023년 2월 18일 발족되어 첫 모임 이후 월 1회(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7시)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본 모임은 북한 어린이 영양개선 지원 활동을 위한 준비모임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배워가며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어린이영양개선을 위한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멘토링 사역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을 위한 정서적 필요와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멘토링 사역이 2022년 7월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여명학교 논현기숙사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은 선교사님과 간사님들의 기도와 준비로 진행되고 있고 2023년부터는 매년 2-3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생활 지원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생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돕고 있다.



오병이어선교회 38주년 감사예배

2024년 8월 22일(목) 오후 7시 오병이어선교회 38주년 감사예배를 올려했다. 38년 동안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박보경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의 '선교의 오케스트라'라는 메시지에 이어 오병이어선교회 본부, 해외 사역자들

이 하나되어 주님께 감사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5 전국기독교식품영양전문인 연합예배」

2025년 7월 5일(토) '건강한 삶과 식품영양'을 주제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독교 식품영양전문인 연합예배가 열렸다. (주)뉴트리아이 한영신 대표의 식품영양전문인의 정체성을 다지는 메시지에 이어 (사)위드의 양일선 이사장의 격려사 그리고 군산대 식품영양학과 이정희 교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발견한 '오병이어'와 북한을 향한 마음을 간증했고, 전희선 영양교사는 현장 영양교사로서의 어려움을 통한 성장의 간증을 하였다.



오병이어 온라인 기도모임 52 pray on

오병이어공동체 국내·외사역자 중심으로 52 pray on이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다. 2024년 10월 8일 세종대전 지부, 12월 3일 본부, 2025년 3월 25일 본부, 5월 27일 탄자니아 지부 인도로 진행되었다. 또한 가나, 나이지리아, 나미비아, 메소와티니 순으로 위드 영양개선연구소에서 진행하는 Yellow Window 땅의 보건영양, 지역, 복음 회복을 위한 라마나웃 기도도 오병이어 온라인 기도모임과 함께 진행하였다.



서울 제4차 로잔대회 참여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4년 8월 1일 ~ 2025년 7월 31일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라는 주제로 진행된 로잔대회에 오병이어 본부사역자, 선교사 11명이 참여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세계 교회의 협력을 나누는 행사에 참여 하였다.



714 연합기도대성회 참여

2025년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호6:1)' 주제로 150개 교회와 25개 선교단체를 포함하여 5,000여 명이 모여 개인의 각성과 교회 부흥, 사회의 변혁, 세계 열방에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한국교회가 사용되기를 기도하였다. 이에 오병이어선교회도 동참하여 기도하여 선교단체 부스 운영과 함께 '오병이어 기도문'을 제공했다.



정기모임

YW 연합예배 모임 | 오병이어선교회, 위드, 위드 영양개선 연구소와 함께 Yellow Window의 변혁을 위해 기도하며 동역 하는 모든 이들이 모여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모임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북한 홍보기도 모임 |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한반도를 품고 하나님의 때를 기도로 준비하는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IFNee(International Food & Nutrition) 아이본이 캠퍼스 모임 | 국제개발, 보건영양, 전문인 선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스터디, 식문화 체험, 예배 등 캠퍼스 모임 (매년 학기 중)
직장부 모임 | 기독교 식품 영양 관련 직장인들의 모임 (매월 첫째 주 오후 8시)
지부 모임 |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지부, 세종대전지부 정기 모임(매월 1회)



해외 소식 및 광고

몽골

몽골 읍스 지역 위생용품 등 구제물품 지원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의 후원으로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몽골 읍스 지역 구제 사업은 여름 가을과 겨울 한파를 지나며 생필품을 구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유목민 가정과 유목민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식품키트와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9월에 말침송 유목민 30가정, 11월 초에는 테라알링송 학교 기숙사 학생 246명에게 생리대, 휴지, 비누, 세탁세제 등 위생용품키트를 개별 지원하였고, 12월에는 나랑볼락송 학교기숙사 학생 118명에게도 지원하였다. 2025년 4월에는 사길송 70명, 5월 다브스트송 학교 52명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해년 올랑곰칼리지 학생 10명을 선정하여 매일 생계지원 장학금 지원하고 진료와 비전을 위한 나눔과 가이드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캄보디아

'해외장학 멘토링' 재개

2025년 2월부터 캄보디아 '해외장학 멘토링'이 재개되어 현재 8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소망의 새 빛 교회를 출석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멘토링 사업은 크리스천 리더로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일을 안에서 성장하도록 멘토링 한다.

미얀마

수양 베이커리 & 트레이닝센터

2022년 10월에 시작된 수양 베이커리 & 트레이닝센터를 통해 중·고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며, 꿈을 향해 정진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세워가는 기숙사가 포함된 일터를 준비하던 중 후원이 채워져 2025년 3월 기숙사가 있는 매장을 열게 되었다.

이후 미얀마 지진 여파로 부족한 전기 등 환경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태양열 판넬 설치를 지원해 준 손길로 인해 어려움을 딛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 남부 지역 탐방

2024년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동아프리카 코디네이터 지명 선교사와 마다가스카르 선교사와 현지 직원 이 남부 툴리아 지역과 근교 지역을 방문하여 무료급식과 학교급식을 위한 조사를 위해 탐방하였다.



제1회 마다가스카르 부부 전인공동체학교(1st Madagascar DUO WCS) 개최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에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5주간 델라가시어와 한국어로 DUO WCS가 진행되었다. 마다가스카르 현지인 3가정과 한국인 2가정이 참여하여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였다.



해외 소식 및 광고

2024년 8월 1일 ~ 2025년 7월 31일

나니아센터 나니아 채플

나니아센터에서는 2024년 10월에 탄자니아에서 진행되었던 제1회 동아프리카 WCS를 수료한 청년 5명과 함께 오병이어수련회를 진행하였고, 청년들이 리더가 되어 목장모임 인도, 성경공부 인도, 컴퓨터 수업 등의 활동을 통해 센터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2월 1일부터는 마다가스카르 청년 12명과 함께 나니아 채플로 예배가 시작되어 매주 컴퍼스 채플 형태로 드려지고 있다.



탄자니아

제1회 동아프리카 전인공동체학교(1st East Africa WCS) 개최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6주간 탄자니아 음베아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로 진행되는 제1회 동아프리카 전인공동체학교에 탄자니아 훈련생 4명과 마다가스카르 훈련생 5명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두 일어섰다. 이들을 섬기기 위해 탄자니아 선교사님들과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다. 동아프리카를 섬기기 원하는 현지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탄자니아와 마다가스카르 더 나아가 동아프리카를 섬겨 나갈 귀한 현지 사역자들이 세워질 것을 기대한다.



제3회 탄자니아지부 사역자 수양회

2024년 11월 28~29일, 탄자니아 다로에스살람에서 탄자니아지부 사역자들이 모여 2025년 사역 방향성을 나누고 연합과 소통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현재 모로고로에 있는 지부 사무실을 음베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과 선교사 변동사항을 공유하였다. 본 수양회는 제1회 동아프리카 WCS를 수료한 현지인 오네시오, 디오니시아 가정과도 함께 하였다.



해외 멘토링 사역 진행

탄자니아 지부에서는 동아프리카 보냄받은 교회(EAA Church)를 중심으로 모로고로와 음베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 1 대 1, Man to Man으로 현지 청년 대학, 대학원생 중심으로 멘토링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김연송(미카엘), 고하늘(재결린), 이도경(마리암), 고윤희(조세판)

동아프리카 스와힐리어권을 섬기기 위한 동아프리카 영양개선센터 준비

2024년 5월 29일 음베아 TEKU 대학과 MOU를 체결한 이후 위드와 협력하여 현지 영양전문가명성교육과정이 진행되었고, 최근 2025년 10월 10일 동아프리카 영양개선센터 개소식을 앞두고 막바지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대만

성경의 맥과 핵, 메시지 성경 번역, 기독교 변증 소설 '인턴 J' 사역

2020년 8월 초판 인쇄된 허계영 선교사의 한국어본 「성경의 맥과 핵」이 중국어본 (번역본, 간체본)으로 번역되어 지난 2025년 4월 2쇄 인쇄되었다. 계속해서 영어본과 몽골어본의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쉽고 재미있고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 성경 번역」 사역도 거의 완료 되고 있다.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저술한 기독교 변증 소설 「인턴 J」도 전자책으로 6월 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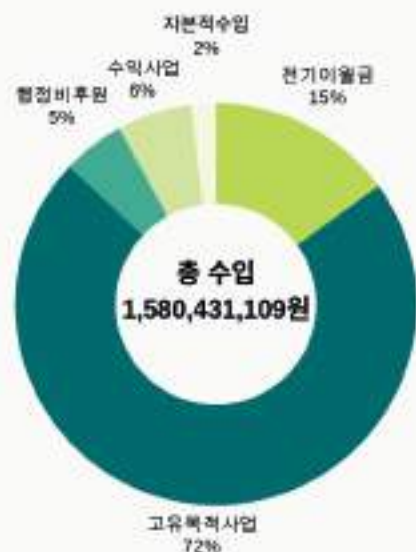
2024년 재정보고(기간: 2024.1.1~2024.12.31)

오병이어선교회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어선교회는 내부 회계 전문가 감사를 통해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검증 받고 청지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입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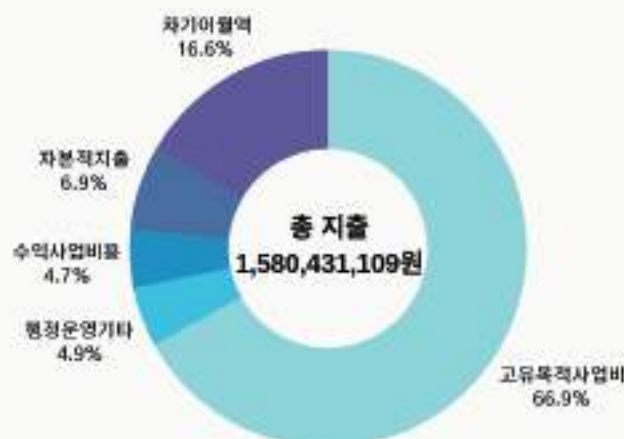
구분	금액	비율
전기어월금	231,163,107	15%
고유목적사업	1,141,513,761	72%
행정비후원	84,570,086	5%
수익사업	93,985,083	6%
자본적수입	29,099,072	2%
합계	1,580,431,109	100%



사업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비율
고유목적사업비	1,057,683,938	66.9%
행정운영기타	77,826,476	4.9%
수익사업비용	73,580,392	4.7%
지분적지출	108,496,370	6.9%
차기이월금	262,843,933	16.6%
합계	1,580,431,109	100%



오병이어선교회 후원자 (기간: 2024.7.1~2025.6.30)

개인 회피 +

[illegible]

기관·단체 요청 +

임리교회제자교회, 개령중앙교회, 고수교회, 광주중앙장로교회, 경양명주교회, 광주중앙교회, 남서물문배교회, 농사성교회, 대동교회, 대한교회, 더불어함께교회, 도심리교회, 동성교회, 동신교회, 들원교회, 부근심교회, 북경현인교회, 분당우리교회, 사랑의교회, 삼기기쁜교회, 삼해문화교회, 새길길리교회, 새빛아울교회, 새시영교회, 서울강남노회선교부, 서울영동교회, 서초동교회, 서현교회, 성당교회, 송내사랑의교회, 수원제일교회, 시흥동산교회, 아름다운교회, 아사임미선, 안동교회, 양미문교회, 영락교회, 영월성문김리교회, 영흥교회, 예들문복음교회, 예성교회, 예수선교회, 율리동교회, 은성교회, 은진교회, 은혜나눔교회, 의정부중앙장리교회, 인천산들교회, (재)예림선교회, 전인교회, 전주강원교회, 제일장리교회, 창빛교회, 창흥문교회, 창형복흥교회, 천곡교회, 천안갈매리교회, 천안현빛교회, 청라현빛교회, 청양교회, 청문교회, 청춘교회, 참복교회, 팔손전교회, 명천교회, 포항성결교회,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함성교회제자교회, 화성교회, 해운교회, 화남아름다운교회, 호신나교회 (74)

(주)선진엔텍, (주)이엘비티, ACWM, 경원기전대SFC, 가드온, 김지한내과의원, 대구BBB, 아주복합병동, 밀알회, 부고온나라, 선진테크주식회사, (사)월드, 오
병이이 글주정산자보, 왕윤정재단, 자유허브드 주식회사, 최영태관리이, 한빛영문, 김선아(강원권역) (18)

圖書定價

- **가계:** (사)한국지재장애인협회 영등포구지회, ㈜영그림 개동중학교, 신수교회, 아시안민선, 연세유일 [5]
 • **가계:** 공미선, 권미영, 권신희, 김광민, 김경희, 김미혜, 김승희, 김유진, 김재철, 김재철, 김희선, 박대만, 박은혜 송광자, 송병만(홍주희), 신민서, 신민호, 신명자, 신재은, 안병복, 양민선, 유인환, 어덕호, 이명숙, 이명남, 이명수, 이명월, 이정수, 최상현(이옥), 장연희, 장태선, 정승원, 정원호(김수영), 최선정, 한종진, 허정자, 황성아, 황혜경, 황혜옥 [52]

오병이어선교회 선교사 후원 안내

오병이어선교회 선교사를 위한 귀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어선교회 모든 선교사는 각각 선교사별 신한은행 전용 후원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 재단' 예금주 이름이 앞부분만 나올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나다 순)

번호	이름	은행	계좌번호	번호	이름	은행	계좌번호
0	본부 사역자	신한	100-035-952967	14	양희선 고은경	신한	100-036-121280
1	강순철 남은자	신한	100-036-120680	15	오명혜	신한	100-036-121114
2	고하늘	신한	100-036-121146	16	유수진	신한	100-036-121228
3	김미정	신한	100-036-120520	17	윤향숙	신한	100-036-120553
4	김동희	신한	100-036-121299	18	이도경	신한	100-036-121153
5	김문석 장지혜	신한	100-036-120650	19	이영옥	신한	100-036-121242
6	김선미(킴)	신한	100-036-120763	20	이용숙	신한	100-036-121203
7	김은혜	신한	100-036-120464	21	임재민 고주영	신한	100-036-121250
8	김민송 고윤희	신한	100-036-121178	22	장준호 조시경	신한	100-036-120635
9	김창식 김선미	신한	100-036-120756	23	주은혜	신한	100-036-120578
10	김혜정	신한	100-036-120724	24	천명길 유 경	신한	100-036-121235
11	박경희	신한	100-036-120642	25	최갈렘 김수아	신한	100-036-121330
12	송성아	신한	100-036-121324	26	홍재호 권미영	신한	100-036-120496
13	안정미	신한	100-036-121371				

오병이어 함께하기



함께해 1 | 선교사 / MK 후원

오병이어 선교사 및 선교사 자녀를 후원합니다. 전용 후원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 02-322-4630 선교사관리부



함께해 2 | 해외장학 멘토링

가난으로 꿈을 잃은 청소년들에게 꿈 찾기 멘토링을 선물해주세요. *1달란트 3만원
신한은행 100-036-027160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 입금자명: 멘토링000



함께해 3 | 사역자(현지인 사역자) 후원

준비된 현지인 사역자 후원은 선교사 한 가정의 파송 효과입니다.
현지 사역자 사례비 30만원 /월

신한은행 100-036-027160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 입금자명: 사역자000



함께해 4 | 오병이어 사역후원

YW 지역의 건강한 변화와 회복을 위해 우선 긴급한 필요 재정으로 사용됩니다.
신한은행 100-035-952967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함께해 5 | 오병이어하우스

오병이어 훈련 센터 및 안식관 마련을 위한 기금 마련에 동참해 주세요.
공동체 영성훈련, 선교훈련을 통해 사역자를 세우고, 선교사 재교육과 장기사역자들의
정서적 건강과 삶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써 가족 신앙공동체를 준비합니다.

신한은행 100-036-027190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오병이어선교회

지	금	여	기
우	리	함	께
나	누	어	요

(재)오병이어선교재단 후원 | 신한 100-035-952957



홈페이지

www.yellowwindow.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yellowwindow52



인스타그램

[fngn_52](https://www.instagram.com/fngn_52)



유튜브

<https://url.kr/2ufmb>



오병이어선교회

Food & Nutrition for Good News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의 건강한 회복과 변화를 위한 총체적 선교로
『오병이어선교회』와 『퀴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연합합니다.